

# 스님들 위한 '문수경전연구회' 탄생

## 정법을 향한 스님들의 구도 행진

많은 불자들이 불교의 현실을 돌아보고 '위상이 무너졌다' '인재가 부족하다'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 등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현실 속에 한파의 어려움을 이기고 피어난 불은 동백꽃처럼 아름다운 수행현장이 탄생했다.

오직 스님들을 위한 공부모임 '문수경전연구회'가 1월 7일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한국불교의 현실에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본분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모임의 목적이다. 부산 범어사 입구 문수선원에서 첫 강의를 개최한 문수경전연구회에 참석한 스님들의 수는 100명이 넘는다. 송광사 율원장 지원 스님, 불교경전연구회 회장 지장 스님,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 영축선원 선원장 반산 스님 등 대부분 부산 경남지역에서 주지를 맡아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스님들이다.

"불교의 위상이 하락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스님들이 본분을 지

키지 못해서입니다. 스님들의 본분은 공부이며 정진입니다. 문수경전연구회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본분을 되새기고 자정하기 위해 구성된 순수한 공부 모임입니다."

문수경전연구회의 선두에서 강주를 맡은 범어사 강백 무비 스님이 모임의 목적을 설명했다. 무비 스님은 <법화경>부터 시작해 <선문연승> <전등록> 등 3년의 기본 과정이 끝나면 1년간의 심화 학습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4년간 과정을 마친 스님들은 철저한 검증 후 무비 스님이 전강해줄 계획이다.

문수경전연구회의 전신은 스님 10여명이 모여 무비 스님에게 강의를 요청한 것에서 비롯됐다. 무비 스님이 강의한다는 소문에 비구니 스님들이 모인 '화엄회'가 합류해 수강인원이 늘었다. 입소문이 퍼져 결국 지역 포교일선에서 활동하는 스님들이 100명 넘게 한 자리에 모여 문수경전연구회가 발족하게 됐다.



문수경전연구회의 첫강의는 무비 스님의 <법화경> 강좌로 시작했다.

모든 에너지를 현장에 쏟아 부은 스님들이 느낀 욕망은 공부에 대한 갈증으로 나타났다. 무비 스님은 "오직 수행과 전법에 집중해 공부로 충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문수경전연구회의 강주 무비 스님이 선택한 첫 교과목은 <법화경>이다.

"<법화경>은 경전 중의 왕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방편이 넘치고 그릇된 주장들이 난무합니다. '회삼귀일(會三歸一)', 하나의 가르침으로 돌아야 합니다. 근거를 제시하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화경>에 대한 사뭇 견해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이런 의견들도 바로 잡

을 것입니다."

<법화경>의 핵심사상은 '회삼귀일(會三歸一)', 각각의 방편을 버리고 진실한 세계, 일승(一乘)으로 돌아오라는 의미다. 진실한 불자들로 거듭나기 위해 교육을 자정한다. 문수경전연구회 스님들의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 (051)515-7870

하성미 기자

## 부산불교 신년하례회 봉행

부산불교연합회, 부산신도회 비전 제시

부산불교신도회와 부산불교연합회가 각각 신년하례회를 봉행했다. 부산불교신도회 공병수 회장은 1월 3일 신년하례회에서 "부산불교신도회관을 거점으로 청정화합시민연대, 로터스클럽 등을 통해 사회적 실천 운동 전개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7일 신년하례회를 개최한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성·사진)는 '사명대사동상 하얏리야 시민공원 이전 및 현양 사업추진' '부산시민연동축제 및 팔관회 등 지역불교문화축제활성화' 사

찰관련 규제해소 위한 특별법 제정추진' 'BBS부산불교방송 창원중계소 건립'을 2008년 부산불교 4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개회 장소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부산불교신도회와 부산불교연합회가 2008년 신년하례회를 따로 봉행해 아쉬움을 남겼다. 부산불교신도회는 1월 3일 부산불교신도회관 6층 법계정사에서, 부산불교연합회는 7일 코모도 호텔 1층에서 신년하례회를 열었다.

하성미 기자



## 한국티벳센터 명상아카데미 및 티베트어 강좌 신설

부산 한국티벳센터(주지 소남)에서 '제2기 한국티벳센터 명상아카데미' 및 '기초티베트어 강좌'를 개설한다.

제2기 한국티벳센터 명상아카데미는 '고통의 뿌리인 악한 마음을 소멸시키기 위한 명상'이란 주제로 진행한다. 명상 교재는 종카파 대사의 <삼요도>이다. <삼요도>는 출리심, 보리심, 공성에 대한 깨달음 등 세 가지 요법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교재 <삼요도> 내용과 명상법 설명, 명상체험 후 질의 시간 등으로 강의는 진행되며 법사는 구름 왕겔 스님이다. 스님은 1956년 네팔과 티베트의 국경 사이에서 출생, 10세 때 네팔 삼델린 사원으로 출가했다. 2년 간 미국 로셀링 센터에서 불교학을 강의하고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다름살라 체츨링 사원에서 방장을 역임했다. 기간은 1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1~6시이다.

기초 티베트어 강좌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과정이며 매주 화, 목 오후 7시 한국티벳센터 1층 공부방에서 진행된다. 강사는 게시 뎀진어 속에는 티베트의 문화 속에 남아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완벽하게 들어 있으므로 불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국티벳센터는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어는 범어에 비유할 수 있는 언어로 현교 밀교 등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모두 들어 있는 언어'라고 말씀하셨다"며 "티베트어 속에는 티베트의 문화 속에 남아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완벽하게 들어 있으므로 불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051)243-2468

하성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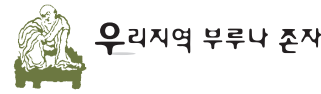
"성도제일을 축제의 날로"

거제도 금강사 봉축법회 봉행

거제도 금강사주지 성원가 성도제일을 이틀 앞둔 1월 13일 성도제일 축하 봉축법회를 지역민들을 초청해 금강사법당에서 봉행했다.

주지 성원 스님은 "부처님의 진정 한 탄생일은 깨달음을 성취한 성도제일이"며 "6년 고행 끝에 대도를 성취한 거룩한 부처님의 뜻을 기리고 일일 개인 연등불을 밝히는 봉축법회를 봉행하게 됐다"며 축하했다. 금강사는 이웃 지역민들과 가족들을 위한 특별봉축공연을 마련하고 영상물 상영, 찬불가 합주 공연, 음식제헌나누기 행사 등을 진행했다.

하성미 기자



## '도심' 장점 최대한 활용

미타선원 하림 스님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하림·사진)은 남포동과 국제시장, 자갈치 시장을 지척에 두고 있는 대표적인 도심 사찰이다. 도심 사찰의 강점은 불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접근성이 좋은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불자들과 사찰이 만나게 된다. 미타선원 역시 매일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각종 법회와 기도, 특강 등이 이어진다.

미타선원도 도심에서 불자들과 함께 호흡하게 된 것은 2006년 하림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면서부터다. 하

과 수행, 봉사 함께 하는 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에는 신도들이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공부와 기도 그리고 수행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타선원 신도회원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월 2만원의 회비로 회원으로 등록되면 불교기독교, 각 기도법회 동참 및 축원을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신도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이용할 때는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심사찰의 가장 큰 사명 가운데 하나는 새싹 포교. 미타선원은 초등학생을 위해 회상 스님(동국대 강사)과 함께 하는 '놀이문화 강좌'를 열고 있



## 각종 법회와 기도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회원제 계획

림 스님은 무엇보다 먼저 가족법회의 활성화를 이끌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된 것은 아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뒤 매월 1회 108사찰 성지순례를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가족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요즘은 150명 이상이 동참한다.

하림 스님은 또 사찰 회보 '마음편한 절 미타'를 정기적으로 발행해 지역민과 사찰을 공동체로 만들었다. 회보는 매월 2000부 이상 인근의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등에 배포되어 많은 포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스님은 무엇보다 사찰의 운영이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유지되길 바라고 있다. 하림 스님은 "사찰운영 및 자금관리를 신도회가 주도할 것이며 시행

다. 또 매주 사찰음식 전문가인 홍승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배우기'로 인스턴트에 물든 먹거리 문화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동화사 강주 지운 스님의 <금강경> 강의, '자비수관' 강좌는 수강생의 뜨거운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누구나 편안히 참선 수행을 할 수 있는 선열당과 안심당 두 선당을 개원해 도심 수행도량으로 자리매김하여 이번 동안 50여명의 재가불자들이 쉬 없는 정진을 하고 있다.

하림 스님은 새해를 맞아 "지혜와 복덕을 함께 쌓아가는 것이 수행인만큼, 수행체계를 확립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세훈 부산지사장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조기유학생 모집  
초 6·중·고 1,2,3학년  
(남경사범대학 부속삼현학교)

### 1. 모집요강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20명 (내선 80점 이상)	· 건강진단서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석 사 과 정	3년	5명 (평점3.5이상)	· 여권용 사진 10매
박 사 과 정	3년	2명	

### 2. 학교 소개

- 세계 집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건강진단서)
- 접수마감 : **2008년 1월 29일**

###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亞東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86322539
- 팩 스 : 25-86798168

### ◆ 한국상담 안내처 :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학림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 2006년 본과 합격자 명단

#### - 본과 합격자 -

- ▲강민정(경희대학원) ▲이거성(연세대) ▲한효정(단국대)
- ▲이정화(건국대) ▲서연호(한국항공대) ▲박병수(명지대)
- ▲박영문(명지대) ▲강성우(호남대) ▲이경환(배재대)
- ▲이종환(우석대) ▲김재문(경남대) ▲최종건(UCLA)
- ▲황진영(유성여고) ▲이창영(마산고) ▲황성환(대건고)
- ▲정재형(성문고) ▲박상준(구정고) ▲이상훈(성신고)
- ▲박민수(회수고) ▲이원영(동지고) ▲김민환(인화고)
- ▲박선규(반포고) ▲송미나(광주여고) ▲김민성(휘문고)
- ▲김준호(배문고) ▲김정우(현대고) ▲박은수(대덕고)

#### - 석사과정 합격자 -

- ▲신병룡(경희대 한의학과) ▲김병호(경희대 한의학과)
- ▲이종섭(경희대 한의학과) ▲송인중(북경중의대 한의학과)

###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원 광 대  
한 의 대 학  
대 전 대  
한 의 대 학  
삼 화 불 교  
대 학 림

한국 총장 손혜인

